

“꿈 없는 스펙쌓기, 청춘이 아깝지 않나요”

청년들에 꿈 강연…청춘문화 기업 스토리 박스 김태완·강수훈 대표

‘스펙 쌓기에 몰두하는 청춘.’ ‘꿈이 없는 젊은이.’ ‘남만을 모르는 대학생.’

젊은 청춘들에게 꿈이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 멤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지적하는 내용들이기도 하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꿈을 찾아주겠다고 나선 청춘들이 있다. 청춘문화기업 스토리 박스(STORY BOX) 대표 김태완(31)·강수훈(30)씨, 전남대 02학번 동기인 이들은 지난해 8월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광주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강연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아직은 걸을마 단계다. 하지만 이들이 기획한 강연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씨와 강씨는 법관을 꿈꾸며 사법고시

를 준비하던 법대생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법관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다른 청춘들처럼 사법고시, 공기업, 대기업을 꿈꾸기도 했다. 이들은 사법고시를 3차례 낙방하고 나서야 지난 30여년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봤다. 그리고 자신들의 청춘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스토리 박스를 만들었다.

“지난해 5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문득 ‘내 청춘은 지금까지 뭐했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처럼 도서관에 앉아서 스펙을 쌓기 위해 보낸 시간들이 전부였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풀이였죠. 남은 추억은 없었어요. 7년 가까운 대학생 활동이 돌아온 한 번 못해봤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대한 한탄을 하다가 스토리

박스를 기획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청춘들의 꿈도 찾아 주자는 의도였죠.”

첫 기획으로 지난 2월 예술나눔카페 ‘에필드 패션’에서 앙코르52 대표 하상용(전 빅마트 대표)씨를 초청, 스토리콘서트를 개최했다. 강사부터 공연팀까지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된 작은 강연이었지만 많은 대학생이 자리에 메웠다.

이들은 지난 강연 기획 경험을 밀그림 삼아 대규모 강연을 준비 중이다.

오는 27일 오후 5시 전남대 대강당에서 KBO 사무총장을 지낸 야구해설가 하일성씨와 게그콘서트 웰스걸로 잘 알려진 권미진씨를 초청, ‘변화와 열정’을 주제로 스토리콘서트 2탄을 연다. 참가비는 무료로 누구나 참석 가능한 강연이다.

“지난 3개월을 매달려 준비한 첫 대형 기

획입니다. 저희 회사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기회이기도 하죠. ‘요즘 청춘을 뭐하나?’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무명 야구선수에서 시작해 KBO 사무총장을 지낸 하일성 해설위원과 게그프로그램을 통해 103kg에서 51kg로 체중을 감량한 권미진씨를 연사로 초청했습니다.”

스토리박스의 목표는 뮤지컬, 콘서트, 영화보다 감동적인 강연을 만드는 것이다. 강연도 하나님의 문화라는 생각 때문이다. 스토리콘서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개인의 여행기, 어학연수 등의 경험을 토대로 소규모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토리 룸(STORY ROOM)’과 젊은 세대를 위한 각종 정보 커뮤니티 ‘스토리 포털(STORY PORTAL)’도 이들이 구상중인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기관 등을 대신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강사를 섭외해 강연을 기획해 주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춘문화기업 ‘스토리박스’ 김태완(사진 왼쪽)·강수훈 대표가 오는 27일 예정된 스토리콘서트 포스터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업으로 성장하는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스토리박스의 강연 정보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http://www.storyboxes.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70-7556-666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KT&G 전남본부 지정병원 협약



밝은광주안과(대표원장 조철웅)와 KT&G 전남본부(본부장 장정식)는 최근 지정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밝은광주안과는 KT&G 전남본부를 비롯 그룹 계열사 직원·가족의 눈 건강을 책임진다.

휴먼사이언스 신문사 휴먼평생교육원 개소



휴먼사이언스 코리아 신문사 부설기관인 휴먼평생교육원(원장 나종상) 개소식이 지난 23일 박인희 광주시의회 교육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세열기자 hot@

전감수 광주시체육회이사, 장학기금 천만원



전감수(나이스 대표) 광주시체육회 이사 겸 광주배구협회 부회장이 지난 23일 ‘2013 광주시장배 전국 9인제 배구대회’ 개최식에서 체육인재 장학기금 1000만원을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광주배구협회 제공

“한국-프랑스 가교 역할 자랑스러워”

한국계 입양아 출신 펠르랭 장관 방한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프랑스의 플뢰르 펠르랭(여·40) 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장관이 지난 23일 방한했다.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나타난 펠르랭 장관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상당히 감동적이다. 프랑스를 대표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활짝 웃었다.

생후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된 펠르랭 장관은 이날 입양 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그는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 경제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를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 대화를 나눌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 양국의 문



화교류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펠르랭 장관은 “프랑스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새로운 현상”이라며 “게다가 한국 영화에 대한 프랑스 관객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바탕으로 상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이었다. 기자들과

의 문답은 불어 또는 영어로 이뤄졌다.

그는 “한국에는 디지털 분야에 큰 기업이 많다”며 “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어떤 형태로든 프랑스 또는 유럽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펠르랭 장관은 “지금 한국계 입양아들이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죄책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가족을 찾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난 프랑스에 가족이 있는 프랑스 국적의, 프랑스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차별을 받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자리면서 그 어떤 차별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무 문제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기부 7년

광주역점, 미술작품 경매 등 행사

아름다운 가게 광주역점 7주년 기념행사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선경외국어 학원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지난 22일 광주시 북구 증흥동 아름다운 가게 광주역점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선경외국어학원(대표 흥문화) 직원들과 학원생들이 기증한 도서와 의류 1000여점과 슈퍼마켓 운암점이 기증한 물품 200점이 판매됐다. 또 조각가 고근호씨의 작품 경매도 열렸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학교밖 청소년 교육단체인 ‘교육공동체 오름’의 ‘늘봄 교실’에 기부됐다.

지난 2006년 3월 광주에서는 3번째로 문을 연 아름다운 가게 광주역점에는 지금까지 5000여 명의 기증천사가 총 8만8000점의 물품을 기증했



으며 10만3000여명이 물품을 구입했다. 또 7년간 147명의 자원활동가가 3만4500시간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개인 기부자와 함께 아름다운 하루 등이 기업공헌기증행사를 통해 80여개 단체와 개인이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한편 아름다운 가게 광주전남본부는 지난해 까지 모두 1억7700여만원의 수익금을 모아 학교폭력 예방, 난치병 돋기 등 다양한 활동단체들에게 지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출가 고선웅씨 ‘영희연극상’



국제극예술협회(ITI) 한국본부(회장 최치립)는 연출가 고선웅 씨를 제32회 영희연극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 조대부고를 졸업한 고씨는 1999년 ‘탁한맨쇼’로 데뷔한 고씨는 연극 ‘뜨거운 바다’, ‘리어외전’, ‘푸른날에’ 등을 연출했다.

협회 측은 “고씨가 다양한 작품을 통해 풍부한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극이 지난 본연의 오락성과 깊이 있는 사회성을 바탕으로 관객과 평단의 기대에 부응한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협회는 올해 새로 설정한 ITI 특별상에 재일교포 극작가 겸 연출가 정의신씨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5시30분 중앙대학교 공연예술원에서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

김강 교수 아시아스피어학회 운영이사



호남대학교 김강(영어영문학과) 교수가 아시아스피어학회(ASA) 운영이사에 선출됐다. 아시아스피어학회는 유럽 중심의 국제스피어학회(ISA)와 차별해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세이스피어 연구자와 연극인 500여명이 참가하여 올해 초 설립됐다. 각 국가를 대표하는 9명의 운영이사회는 아시아를 기반으로 학술대회, 학술지발간, 국제공연 등 학회활동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김 교수는 또 2014년 세이스피어 탄생 45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스피어학회가 독일세이스피어학회, 세이스피어생가재단, 유럽세이스피어학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이스피어 450 기념축제’의 학술대회 패널 위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채희종기자 chae@

고영철 문화신협 전무 기재부 장관상



‘2013 서민금융대상 시상식’에서 광주문화신융합동조합(이사장 조상만) 고영철 전무가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았다. 최근 서울 여의도 종로구에 위치한 협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50여명에게 310억원을 대출해서 3년 연속 신협 1위 실적을 달성했다.

고영철 전무는 수상 소감에서 “신협이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서민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민문화교육사업, 지역인재 육성에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지용현(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저질로생협 이사장·최희원씨 장남 하동(광주서부경찰서)군 조연원·염덕순씨 차녀 미경(상무고 교사)양=30일(토) 낮 12시 광주신양파크호텔 예식홀.

▲김용대씨 장남 태주군 조기호(광산법무사)씨 차녀 영진양=30일(토) 오전 11시 광주 P&J웨딩홀 1층 프린세스홀.

▲구형모씨 장남 교육원 정공섭(여수법무사)씨 차녀 해원양=30일(토) 오후 1시 여수 응천 더비체웨딩홀 2층 비치홀.

▲염승렬(광주축산농협 광산점장)·이선희씨 장남 정필군 임정태·이문순씨 삼녀 성지양·파로연=30일(토) 낮 12시~14시 광주 이화웨딩캐슬 1층.

▲이호준(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김선희씨 차남 인성군 서창근·곽민희씨 장녀 효민양=31일(일) 서

동창동문회

▲복성중 제26회 동창회(회장 김성근) 월례회=26일(화) 오후 7시 영미오리팅(상무지구) 062-362-5252.

▲광주 숭의고 제1회동창회(회장 안진환) 월례회=30일(토) 낮 12시 예향회관(광주세무서 옆) 010-8983-8671.

▲전주리씨 대동중학원 광주·전남 지원 강진분원 정기총회=27일(수) 오전 11시 분원사무실 강진읍 남성리 수협 2층 사무실 010-2642-1110.

▲전주리씨 대동중학원 광주·전남 지원 무안분원 정기총회=28일(목) 오전 11시 분원사무실 무안읍 백제웨딩홀(고촌검문소옆) 010-475-4989.

▲전주리씨 대동중학원 광주·전남 지원 원암분원 정기총회=29일(금) 우권의문제연구소 062-369-0420

알립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무료 일코울상담=알코올,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 제공. 교육을 실시 광주북구증독관리센터 062-526